

## 교환학생 보고서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소속전공               | 전자공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 번  | 200**033       | 성 명  | 이준영      |
| 주 소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대전화 |                | 메일주소 |          |
| 파견국가               |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견대학 | 슬로바키아<br>공과대학교 | 파견학기 | 2016/1학기 |
| 소요경비               | 비행기 가격(약 100만원 근처), 기숙사비(약 50만원), 식비(약 150만원), 기타 문서와 관련된 것들(약 40만원) 기본적인 총 경비는 350만원 정도입니다. 여행경비와 기타 사비등을 제외한 금액이라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주거                 | 학교에서 주어지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. 학부마다 기숙사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. 제가 거주를 한 곳은 전자공학부 및 IT관련학과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룸메이트               | 슬로바키아인과 불가리아인 룸메이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. 친절한 친구들이여서 지내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재미있게 보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기숙사 내<br>한국인       | 기숙사 내에 한국인이 전혀 없었습니다. 동양인을 만날 기회가 없으며, 오히려 이런 점이 그 문화에 더 스폰지처럼 흡수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파견대학<br>정보         |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대체로 원활하게 수강을 할 수 있고, 우리 대학과의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수업하는 방식은 수강을 원하는 과목의 교수님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파견대학<br>국제<br>교류부서 | 각 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메시지와 관련해서 각종행사들을 알려주고, 메일을 통해 국제 교류부서와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. 섬세하게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큰 틀만 잡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고 좋습니다.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주말 및<br>여가활동       | 개인적으로 슬로바키아어를 배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를 하였고, 기숙사에 온 친구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멘토 또는<br>교류도우미     | 따로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는 멘토와 교류도우미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서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. 파견 대학 교류부서 담당자와 이메일 연락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전공                 | 전공과 관련해서는 수업을 신청한 교수들과 따로 수업 시간을 잡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. (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수업<br>스케줄          | 수업 스케줄을 담당 교수님들마다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확정된 수업 일정이 아니라 거의 매주 바뀌며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생할인<br>관련   | 학생 관련 할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. 그리고 별도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SIC카드<br>활용 |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데 사용을 하고 기타 기차를 끊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였습니다.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어공부         | 현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영어로 된 해외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고, 전공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|
| 여행           | 저는 여행보다는 해외 정착에 관심이 더 많았기에 짧게 시간을 내서 오스트리아, 크로아티아, 헝가리, 슬로바키아에 여행을 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           | 트램과 버스 등을 이용을 하면서 지냈습니다. 이동하는 체계에 대한 복잡한 것은 있지만 이동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날씨           | 한국과 날씨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비가 오는 횟수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슬로바키아가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인턴         | 월급을 주는 해외인턴 몇 곳에 지원을 하였지만, 탈락을 했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해외 구직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기회들을 알았습니다. 4학년 2학기를 할 때 국내 구직활동과 더불어 해외 구직활동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|
| 추신           |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기에 굉장한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완점          |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완할 점이 없습니다. 지금 이미 갖춰진 시스템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